전법 일기

염불하던 견공 천룡거사 내생엔 부처님 제자되길

대구 비슬산 용연사는 8대 적멸보궁으로도 유명하지만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용연사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는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도 특효다. 이와 더불어 용연사에는 특별한 명물 마스코트 '천룡거사'가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스님들과 차담 중 강아지를 키웠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당시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강아지 새끼를 알아보라는 선배스님들의 지시가 있었다.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사무장의 도움으로 인터넷으로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사람을 찾았다.

대구공항 인근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인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풍산개 강아지 한 마리를 추천해 줬다. 용연사로 돌아오니 강아지를 좋아했던 대중스님들 이미 마중 나와 있었다. 대중스님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제 가족이니 행복하게 살자" "절집에 왔으니 염불공부하자" 등의 인사를 남겼다.

논의 끝에 강아지의 이름도 정해줬다. 그 이름이 바로 '천룡(天龍)'. 이생에서 복을 지어 축생에서 벗어나 다음 생은 사람의 몸을 받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겼다. 며칠은 낯가림 때문에 기를 펴지 못했던 천룡이는 대중스님들의 사랑 덕분에 사찰 생활에 120% 적응을 완료했다. 부처님 품안에서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난 천룡이는 어느새부턴가 용연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들에게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됐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생활해서인지 천룡이는 스님을 곧잘 따랐다. 스님이 법당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염불을 외울 때면 법당 앞을 서성이다 아예 법당 안에 들어와서 좌선하듯 자세를 취했다. 어느 날부터 새벽예불 전 도량석에 동참하기도 했다.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천룡이는 법당 안 스님 좌복 옆에 앉아 예불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다.

물론 법당을 관리하는 보살에게 천룡이는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다. 스님들을 위해 깔아놓은 좌복 위에 천룡이가 누워 흙과 털로 더러워지니 좋아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천룡이는 법당 보살의 호통에 쫓겨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중스님들은 우리 천룡거사에게 전용 좌복을 마련해 예불에 참여토록 했다.

천룡거사는 염불도 곧잘 했다. 신기하게 절에 신도 가족의 제사가 있는 날이며 천룡거사는 법당을 떠나지 않았다. 제사 담당인 필자가 염불하면 천룡거사는 허공을 바라보며 "우~우~우" "엉~엉~엉" 반복하면서 염불을 따라했다.

불교교리 가운데 하나인 윤회는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고 죽는 중생의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이다. 사람들에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 도리를 다하고 더불어 잘사는 이번 생은 전생의 결과면서 다음생의 예고편임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천룡거사는 2012년 겨울,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천룡거사여, 이번 생엔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다음 생 꼭 사람으로 태어나시게나. 기다리고 있겠소!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⑬ 오장설과 우파니샤드

사물 사이 질서를 바라보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 인간은 어떻게 이해됐을까? 부처님 당시는 중기 우파니샤드 시대에 속한다.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오묘(奧)한 뜻(義)을 교시하는 오의서(奧義書)와 아란야(森林) 수행과 연관된 삼림서(森林書)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 문헌들은 지고한 절대에 대한 인식을 밝힘으로써 무지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본질을 다섯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였다.

피상적 속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밀한 본질에 이르는 다섯 겹의 인간의 실체는 어떠한가? 이는 오장설(五藏說)로 회자된다. 다섯 덮개(pañca kośa)는 〈타잇티리야 우파니샤드〉와 〈파잉갈라 우파니샤드〉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후 14-15세기 불이일원론 학자인 비드야란야의 〈판차다쉬〉에서, 그리고 16세기의 수행자인 사다난다의 〈베단타사라〉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오장설이 시대를 거듭하며 정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장설의 첫째는 '음식의 정수인 유미죽으로 이루어진 덮개'(anna maya kośa)이다. 지수화풍의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신체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둘째 덮개는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prāṇa maya kośa)이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는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감각적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mano maya kośa)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마음의 기능을 작동하여 외부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넷째는 '지성으로 이루어진 몸'(vijñāna maya kośa)이다. 인식의 본질적 기능은 외부대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면을 관조하여야 하며, 지성은 불꽃처럼 인간의 내면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오장설, 생존 원리 통해 자아탐구
인간 인식과 쾌락의 원리로 귀결
사물 질서, 현대인 오만함 비판해
우리는 우주 질서 내에서 존재한다

다섯째는 '환희로 이루어진 몸'(ānanda maya kośa)이다. 인간의 내면에 깃든 본성이 우주적 본체와 다르지 않음에 도달할 때 인간은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여 환희를 향유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파니샤드(Upaniṣad)는 가까이를 뜻하는 'upa'와 아래를 뜻하는 'ni', 앉다를 의미하는 'ṣad'의 세 가지 낱말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가까이 아래에 앉다'이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스승의 가까이에 앉는다'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스승이 제자에게 지고한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이미지는 나아가 사물들 간의 질서 있는 배열로 이어진다. 이 배열 관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적용된 것이다. 가시적인 물질성의 존재로부터 미묘한 인식주체의 희열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계차적 배열로 분석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음식과 관련한 생존의 원리에서 출발한 자아탐구의 길인 오장설은 인식과 쾌락의 원리로 귀결된다. 고대의 지혜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우리 시대의 첨단기술 분야에도 일정한 빛을 줄 수 있다. 사물들 사이의 질서라는 관점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우주와 생명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가 오만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도록 한다. 현대인은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존재이기에 앞서 우주와 생태 안에서 하나의 사물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수현 스님 속환사바 하소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수현 스님이 1월 25일 오후 원적에 들었다. 수행자에게는 삶과 죽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법이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설 연휴를 시작하는 시기였기에 조용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세속의 나이로 올해 84세, 법납 71년. 1954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남석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동학사 비구니불교전문강원, 동국대 불교학과 등에서 수학했다. 1974년 세납 불과 서른여섯에 동학사 주지를 맡았다. 학인들이 배고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이뤘다.

스님은 세상과도 거리를 두지 않았다. 중생을 외면하지도 현실과 단절하지도 않았다. 불교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족적을 남겼다. 1981년 종단 최초의 어린이집인 서울 낙산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했고 이후 불교계에서는 미개척분야였던 복지시설 수탁을 이뤄냈다.

바깥 활동 중에서도 안양 안흥사 불사도 이뤄냈다. 눈에 보이는 불사만이 아닌, 판자촌이 즐비했던 안흥사 주변 이웃들을 돌보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멈춤없는 원력이 있었기에 불교복지를 개척하는 와중에도 안흥사를 도심 속 포교도량으로 우뚝 세울 수 있었다.

수현 스님은 생전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성과는 자신이 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에게는 그저 부처님 제자된 길을 가는 과정이었다. 그 속에서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았고, 부족한 곳에 주춧돌이 되며 부처님 가르침을 펼쳐 보였다.

중국 북송의 학자 사마광(司馬光)은 "경서(經書)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수행이었든 연구였든 각자 처절한 길을 걸어가지만 실천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 입춘을 앞두고 입적한 수현 스님이 더욱 그리운 이유다.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바를 기원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로 잃은 오른손…
손보다 가족 생계 걱정에 눈물

네팔인 차파카인 고팔 씨, 분쇄기에 오른손 절단
일 할 수 없어 가족에게 생활비 못 보내는 상황
손보다 가족 생계가 더 신경 쓰이고 막막한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